



즉시 배포용: 2019년 12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10월 31일의 극심한 폭풍으로 인한 주요 재해 선포 연방 정부 승인 발표**

*폭풍 관련 손해로 18개 카운티에 공적 지원 제공*

*주지사는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에  
개인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9년 10월 31일과 11월 1일에 발생한 심한 폭풍과 갑작스러운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18개 카운티에 대해 연방 정부가 주요 재해 선포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선포와 함께,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MA)은 폭풍이 지나간 후 재해 대응 비용과 인프라 피해액으로 3,300만 달러 이상이 발생했다는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추정액을 확인했습니다. 이 승인은 지역사회가 계속해서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한 다음 단계입니다.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MA) 공공 지원 프로그램(Public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잔해물 제거, 비상 보호 조치와 도로, 공립학교, 다리, 공원, 병원, 파출소, 소방서, 상수 및 하수 처리 시설과 기타 공공시설을 포함하는 공공 인프라의 수리와 재건과 같은 활동에 대해 배상합니다.

공포 대상인 18개 카운티는 셔터퀴, 셔냉고, 코틀랜드, 이리, 에섹스, 폴턴, 해밀턴, 허키머, 제퍼슨, 루이스, 매디슨, 몽고메리, 오네이다, 오스위고, 옷세고, 사라토가, 티오가, 워런 카운티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폭풍이 공공 인프라에 입힌 피해에 대한 우리 전문가들의 평가를 승인했으나, 이는 이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보조를 얻는 첫 단계일 뿐입니다. 저는 폭풍이 지나간 아침에 현장에서 수백 개의 가정이 입은 심각한 피해를 직접 목격했으며, 연방 정부는 이제 이 가족들이 그들의 삶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는 아직 개인 지원 프로그램(Individual Assistance program)으로 주택 소유자를 지원하려는 뉴욕의 자금 요구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주지사의 요청은 18가구가 파괴되었으며 135가구가 큰 피해를 입었고 136가구가 작은 피해를 입었으며 110가구 또한 폭풍으로 영향을 받았음을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연방 재해 선포를 통해 뉴욕주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국(State's 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은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공공 지원 프로그램(Public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복구 프로젝트를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MA)은 해당 프로젝트의 자격을 검토하여 해당 부서 및 지역 공무원과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범위를 정하고 결합할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확인되고 초기 현장 방문을 수행하면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MA), 부서 직원 및 현지 관계자는 프로젝트 워크시트(Project Worksheet)를 개발할 것이며, 여기에는 피해 기술, 작업 범위 및 비용 견적이 포함될 것입니다. 최종 미국연방 재난관리청(FEMA) 자격 검토 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이 의무화됩니다.

**국토 안보 및 비상 서비스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커미셔너 Patrick A. Murph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할로윈 폭풍이 업스테이트 뉴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주 기관은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대자연에 의한 피해 평가 및 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올바른 일을 하고 주지사의 주요 재해 선포 요구에 주의를 기울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는 이제 더 나은 재구축을 위해 중요한 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 및 뉴욕주 메소넷(New York State Mesonet) 데이터에 따르면,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광범위하게 2에서 5인치의 강우가 내렸고, 고립된 지역에는 폭풍 기간 중 최고 7인치에 달했습니다. 10월 31일에 시작되어 11월 1일까지 비가 내렸지만, 대부분의 강우는 여섯 시간 내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폭풍은 폭우, 갑작스런 홍수와 강풍을 동반했습니다. 실제로 홍수가 웨스트 캐나다 크릭(West Canada Creek)의 힝클리 댐(Hinckley Dam)과 카스트 다리(Kast Bridge), 호프의 사칸다가 강(Sacandaga River), 리틀 폴스의 모호크 강(Mohawk River)에서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모이어 크릭(Moyer Creek) 인근의 허키머 카운티 프랭크포트 빌리지, 사우쿼이트 크릭(Sauquoit Creek) 인근의 오네이다 카운티 채드워 등 모호크 밸리의 일부 주민들은 대피해야 했습니다. 뉴욕주의 응급 수중 구조팀인 태스크 포스 투(Task Force 2)의 뉴욕주 및 지역 구성원 40명은 폭풍 속에서 65명과 14마리의 동물을 구출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100개 이상의 주 도로가 손상, 폐쇄되거나 통행이 불가능했습니다. 폭풍으로 인한 강우량이 최고치에 달하자 다수의 도로, 교량 및 배수로에 물이 넘쳤습니다. 도로 갓길 침식 및 교량 피해 등 다수의 기후 관련 요소로 인해 손상이 발생하여 지하 배수로 및 도로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공익 사업체 직원들은 10월 31일에 시작하여 11월 2일까지 계속되며 뉴욕주를 휩쓴 폭우, 강풍, 돌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650,000명 이상의 전기 고객에게 전력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246,621명의 고객이 전력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11월 1일, 주지사는 카유가, 셔터쿼, 코틀랜드, 더체스, 이리, 에섹스, 해밀턴, 허키머, 제퍼슨, 몽고메리, 오네이다, 사라토가 및 워런 카운티에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폭풍 전후 및 폭풍 발생 당시, Cuomo 주지사는 여러 주 정부 기관, 수백 명의 주 요원, 방위군(National Guard) 및 기타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고 광범위하게 주 정부 대응 장비를 배치하여 지역의 대응과 청소 작업을 지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폭풍 발생 직후 모호크 밸리와 노스 컨트리 전역에 [9개의 재난 지원 서비스 센터\(Disaster Assistance Services Centers\)](#)를 설립하여 주민들에게 주, 카운티 및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복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은 테러, 인재와 천재,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를 예방하고, 이로부터 보호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 시 복구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리더십, 공조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트위터\(Twitter\)](#)에서 [@NYSDHSES](#)를 팔로우, 또는 [인스타그램\(Instagram\)](#) 팔로우, [dhSES.ny.gov](#)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